

“1년간 중개실적 한 건도 없다” 셔터 내리는 복덕방

부동산 경기침체에 거래 ‘뚝’...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못내 광주·전남 지난해 9월~올 2월 376명 휴·폐업...개업 271명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었어요.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버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처럼 폐업을 고민하는 중개사들도 주변에 여럿 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광주·전남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등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 아파트 매매 거래 3~4건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었지만, 거래가 뚝 끊긴 지금은 본인 인건비는커녕 임대료도 내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20대 후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고 2년간 운영해오다가, 결국 올해 초 폐업을 하게 됐다는 A

(여·31)씨는 “힘들게 공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사무실을 열었지만, 최근 1년 동안 중개 실적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월세도 내지 못해 빚만 쌓아가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달에 4건만 해도 ‘월급쟁이’보다 나은 것 같아 뛰어들었는데, 사무실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에 접어들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업 또는 폐업한 광주·전남 공인중개사는 376명(폐업 331, 휴업 45)으로 신규 개업자

(271명)보다 105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391명으로, 최근 6개월보다 더 많았으며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도 282명(폐업 231명·휴업41명)이었다.

특히 광주만 놓고 봐도 신규 개업자가 더 많았던 평소와 달리 부동산 경기침체가 극심해진 9월부터는 휴·폐업을 택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휴·폐업보다 개업이 더 많았지만, 9월에는 개업과 휴·폐업이 각각 29건으로 같아지더니 10월부터는 개업 23건에 휴·폐업 24건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11월 개업 28건 휴·폐업 39건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고, 올해 2월까지 개업보다 휴·폐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더 많았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폐업이 늘어난 것은 지역 내 매물이 급감하는 등 거래가 자취를 감춘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0년 5만5615건에서 2021년 3만7367건으로 32.81%(1만8245건 ↓)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2만4141건으로 전년 대비 또 35.39%(1만3226건 ↓) 급감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4만9166건→3만4530건(-29.76%·1만4636건)→2만9940(13.29%·4590건)으로 줄곧 감소를 면치 못했다.

광주시 남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B씨(56)는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집을 사길 원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라며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들도 그동안 울랐던 집값을 생각하면서 현 시세에는 집을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된 것

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최대 4년 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만 하더라도 2년에 한번 꼴로 새롭게 전세계약을 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면서 당달아 전세계약 일감도 줄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로, 기존 5~6%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이 3%대까지는 떨어져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최근 빌라 전세 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 업계 분위기는 최악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사내 정보보안 우수인력 8명 튀르키예와 방어팀으로 참가

한국전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 방위센터가 주관해 21일까지 열리는 국제 사이버 공격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 23’에 대한민국·튀르키예 연합훈련팀이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락드실즈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체제 마련과 종합적인 사이버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매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38개 회원국 보안전문가 2000여명 이상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한전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1개 기관 60여명 규모의 한국 대표팀을 구성해, 3년 연속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38개 국가의 24개 팀이 경합할 예정으로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뉘어 실시간 사이버 공방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 대표팀은 튀르키예 대표팀과 연합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팀으로 참가한다.

한전은 이번 훈련에 보안 경진대회 입상자 위주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실즈 23’에 대한민국 대표팀 일원으로 참가하는 한전 정보보안 직원들. (한전 제공)

로 구성된 사내 정보보안 우수인력 8명이 참가하며, 에너지 분야의 방어팀 일원으로 가상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NATO 사이버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사

광주경총,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난 19일 ‘2차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의회에는 지역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40명이 참석했으며, 류관훈 광주지방공용노동청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장이 강연을 했다. 류 과장은 지역 산재사고현황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중대재해 사례 등을 설명한 뒤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진행했고,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올해 중소기업 주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광주경총에서도 올해부터 추진 중인 ‘복구 취업지원센터’와 내일전환아카데미 사업 담당자가 관내 자동차·가전·금형·신산업 등 중소기업과 근

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최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뿌리기업 구인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진석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서로 모여 인사노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무·회계·인사·노무 등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직무별 워크숍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비대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는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자동이체 포함)을 이용해 타행 이체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이와함께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또 지난 3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



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고객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지역과의 상생영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로드벤처 AT52’ 제품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로드벤처(Road Venture) AT52’ 제품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Red Dot Design Award 2023) 제품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55년부터 제품,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콘셉트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독일의 if,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본상을 수상한 ‘로드벤처 AT52’는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다. 트레드의 센터블록 지그재그 디자인을 통해 오프로드 성능을 향상시키고, 하이테크놀로지(구조 및 신소재)를 통한 내구력 및 견인력을 강화시키며 온-오프로드 모든 지형 및 기후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이드월에는 사이드월 보호 블록 디자인을 적

용시켜 강인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동시에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손상을 최소화하고 펑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은 “금호타이어의 로드벤처 AT52는 금호타이어의 대표 온-오프로드 타이어로서 오프로드 차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며 “지난달 유럽 유럽 전문지 아테아체와 아우토 빌트, 스포츠 오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인정받으며 제품 역량을 입증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 광주점 “ACC ‘시아와 친구들’ 만나세요”

내달 14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 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 팝업스토어를 다음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아동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ACC 어린이 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시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고니, 페리, 칼리, 엘리, 키니 등 캐릭터 상품들과 그 외 천연 소재로 만든 크레용 제품 등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행사를 ESG 관점에서 환경을 고려한 행사 공간으로 조성했다. 팝업스

터 행사 자재를 플라스틱 유류박스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 등을 사용해 행사 종료 후 폐기되는 집기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했다.

전일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지역 내의 문화 예술 공간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ACC와 함께 진행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이번 행사는 물론 앞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3.11(-11.97)
↓ 코스닥	885.71(-23.49)
↓ 금리(국고채 3년)	3.334(-0.003)
↓ 환율(USD)	1322.80(-2.90)